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구조물 완공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1년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구조물 공사를 모두 마치고 항공기 교통통제 시스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말 착공, 만 2년만에 선보인 관제탑 구조물은 높이 100.4m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으며 관제실 바닥면적도 180㎡(54평)에 이른다고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관제탑 상부에 지상감시 레이더(ASDE)를 설치한데 이어 오는 2000년 6월까지 관제통신시스템, 비행정보처리시스템 등 항공안전 운항 시스템 설치작업을 모두 마치고 6개월간 종합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KAL, 조종사교육 미 FSB에 위탁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운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세계 최고 권위의 비행훈련 전문업체에 조종사 훈련 및 평가를 맡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비행 및 정비훈련 전문기업인 플라이트 세이프티 보잉(FSB)사와 8월1일부터 2년간 대한항공의 조

종사 훈련 및 평가를 위탁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 FSB사의 조종사 관들은 8월부터 대한항공 인천운항훈련원에 상주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 기종전환, 승급과정 시뮬레이터 훈련 및 심사, 정기 시뮬레이터 훈련 및 심사, 기장 노선 심사 및 실제운항 경험 등을 교육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현재 항공안전 부문에서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델타항공에 200억 원 규모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운항체제 전반을 재정비키로 하는 등 사운을 걸고 약 2천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안전운항 장비 및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보유항공기 첨단화 계획에 따라 F100,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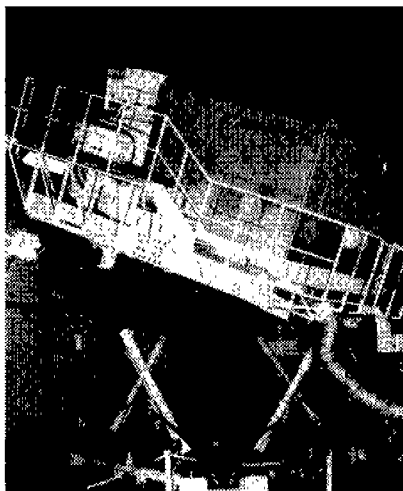
82, B747-200 등의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B777, A330 등 최신형 첨단항공기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에어프랑스-델타 항공 전략협정 제휴

프랑스 국영 에어프랑스사(社)는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미국의 델타 항공사와 여객 및 화물에 관한 배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에어프랑스에 대한 자본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델타측은 이밖에 스위스 항공, 벨기에의 사베나, 오스트리아 항공 등 유럽항공사와의 추가 제휴 의사도 밝혔다. 이미 승객들이 상대방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코드공유 협정」을 체결, 운용해 온 양사는 이번 제휴로 각사가 본부 기지로 사용하는 파리 및 애틀랜타 공항을 서로 활용하는 이점도 쟁길 수 있게 됐다.

에어프랑스는 유럽 3위의 항공사로 85개국 174개 지점에 취항하고 있으며, 델타 항공사는 미국 3위의 항공사이지만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항공사로 29개국 230개 지역에 취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운용중인 B-767 시뮬레이터

아이베리아 항공 유럽 노선에 A321 취항

아이베리아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19대의 에어버스 A321-200 중 첫 번째 항공기를 유럽지역 노선망에 취항시켰다. CFM 인터내셔널의 CFM56-5 엔진을 장착한 186인승의 A321은 아이베리아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24대의 A320에 추가해 운용될 예정이며 지난해 발주한 총 26억 달러 어치의 물량 중 일부이다. 이로서 아이베리아 항공의 A320 계열 운용 대수는 총 76기에 달하게 되었다. 아이베리아 항공은 현재 A320 31기와 A321 19기를 확정 발주한 상태이며 9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리스해서 운용하고 있다.

에어마다가스카르 767-300ER 리스로 인수

에어마다가스카르 항공이 GE 캐피탈 에비에이션 서비스에서 리

스한 신형 보잉 767-300ER 1번기를 인수했다.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CF6-80C2 엔진을 장착한 228석의 이 767기는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한 최초의 767기이다.

767-300ER의 제작기간 동안 형식증명을 받고 장착된 이 시스템은 앞으로 다른 767기에도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미 항공사들 Y2K대처 8월까지 마무리 계획

미국 항공사들은 8월 31일까지 Y2K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ICAO와 IATA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은 Y2K 문제에 대해 95%까지 진척되었으며, 여름까지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공항들도 작업 중에 있으며, 보잉과 에어버스사도 Y2K가 비행 안전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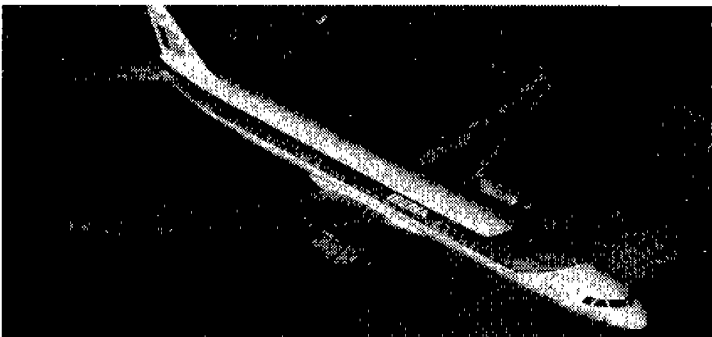
IATA는 Y2K 문제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연례 회의의 자료에 의하면 소속 항공사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IATA와 미국 항공운송협회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Airline Business가 행한 최근의 정보 기술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세계 주요 상위 150개 항공사 중 91개 항공사(61%), 단지 1/3만이 날짜 문제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한다.

영국, BA항공사 수익신장 대책수립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BA)사가 단거리 노선의 일부를 감소시키고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을 새로운 침대스타일의 좌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을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는 전년도에 비해 지난 회계연도에 이익이 61%나 감소한데에 있다.

BA항공사는 이러한 영업실적 부진의 원인이 전반적이 경기하강, 프리미엄급 승객의 감소 및 북대서양 노선에서의 과도한 운임 경쟁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이베리아 항공의 A321여객기